



Quant

Q

U

vol. 8 2020. 5. 11

Market Inside

미워도 다시 한번



Point 1. Investment Idea
Point 2. Market Data Check Up

T

Quant **염동찬**

02 3779 8918

dongchan@ebestsec.co.kr



Market Inside

Quant

미워도 다시 한번

Contents

Point 1.	Investment Idea: 다시 한번 IT	3
Point 2.	Market Data Check Up	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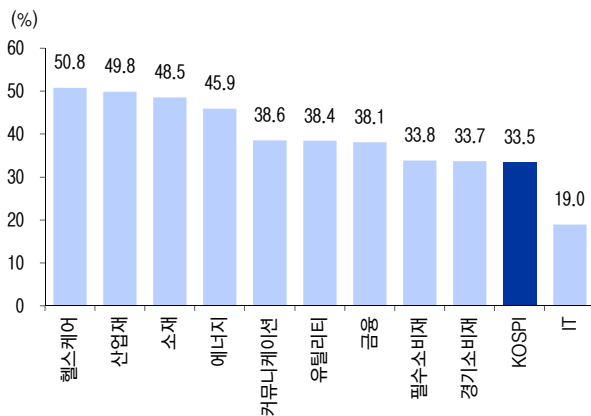


Investment Idea: 다시 한번 IT

반등 구간에서 KOSPI 수익률을 하회한 유일한 업종: I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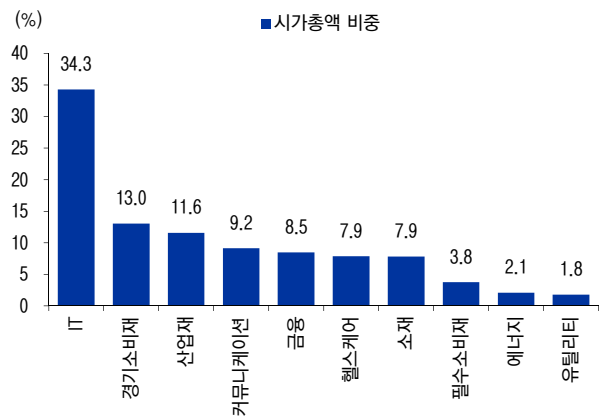
- ▶ KOSPI는 연간 저점이었던 3월 19일(1,457pt) 대비 33.5% 상승. KOSPI의 10개 섹터별 수익률을 비교하면, 10개 섹터 중 KOSPI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섹터는 IT가 유일.
- ▶ 이는 IT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4.3%로 다른 업종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. 다만 다른 업종 대비 수익률이 낮았다는 점이지 KOSPI 상승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님. KOSPI 수익률 33%에서 IT는 7.3%를 설명

그림1 3/19~5/8 KOSPI 섹터별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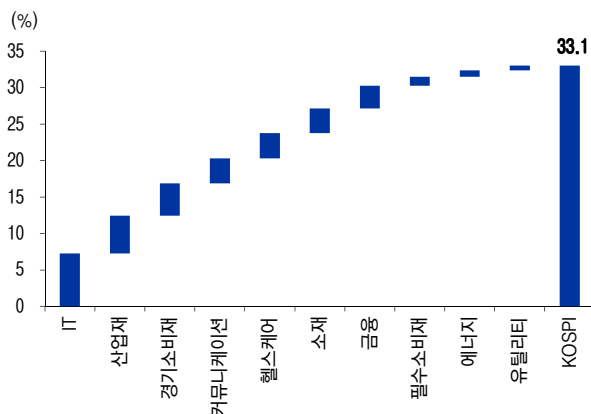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KOSPI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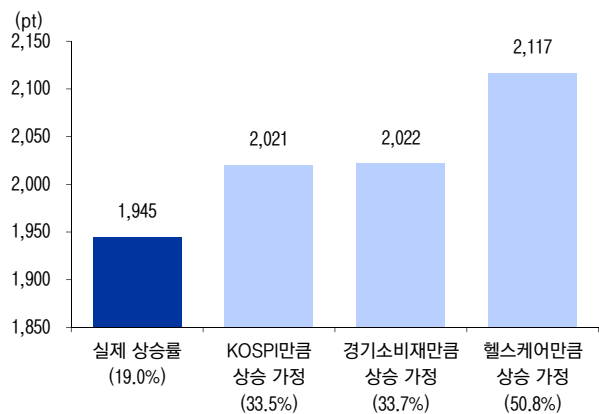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3/19 이후 KOSPI 수익률 업종별 기여도


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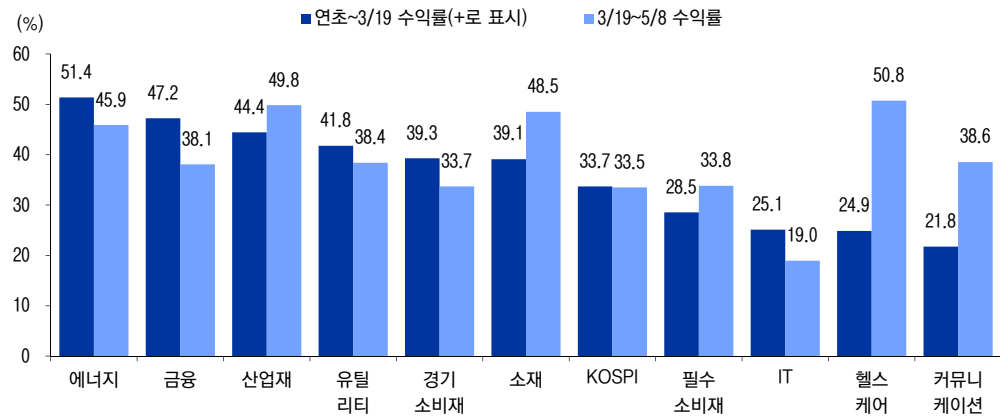
그림4 만약 IT 업종 수익률이 더 좋았다면?


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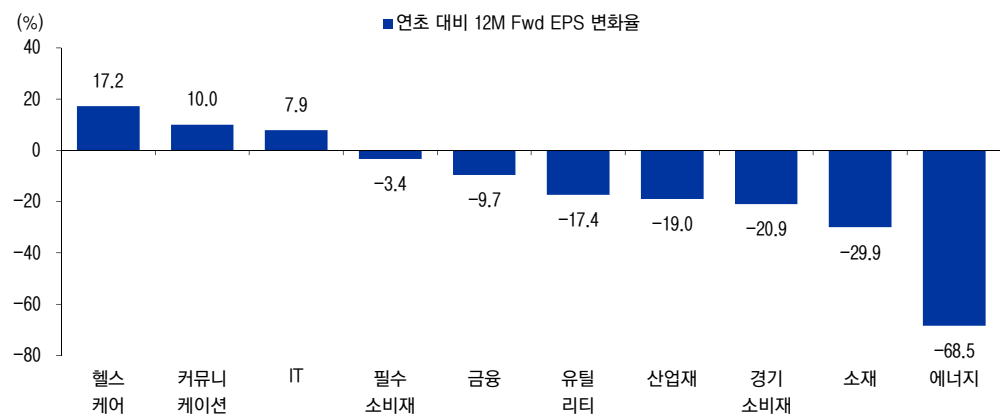
- ▶ 만약 IT가 19% 상승한 것이 아니라 KOSPI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현재 KOSPI는 2,000pt를 상회했을 것이고,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헬스케어 업종만큼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현재 KOSPI는 2,100pt를 상회한 상태일 것.
- ▶ 바닥 대비 IT 섹터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하락폭이 적어서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, IT 섹터보다 더욱 하락 폭이 작았던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수익률을 보면 단순히 덜 하락한 업종이 덜 반등한 것은 아님.
- ▶ 실적 측면에서도 IT업종은 12개월 Fwd EPS가 상승한 3개 섹터 중 하나인데,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작았던 모습을 기록.

그림5 업종별 하락 구간 수익률과 상승 구간 수익률


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한국 섹터별 12개월 Fwd EPS 변화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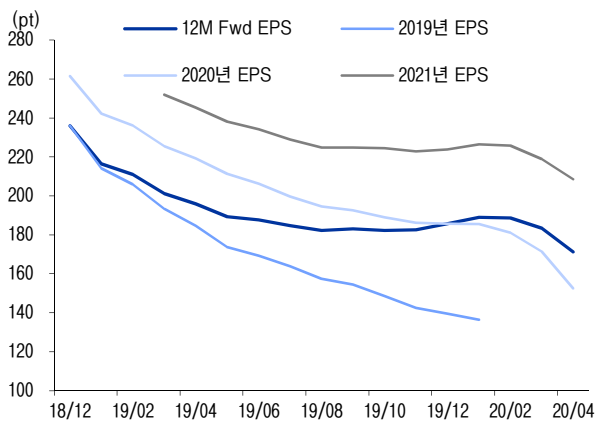


주: MSCI 기준

자료: Thomson Reuters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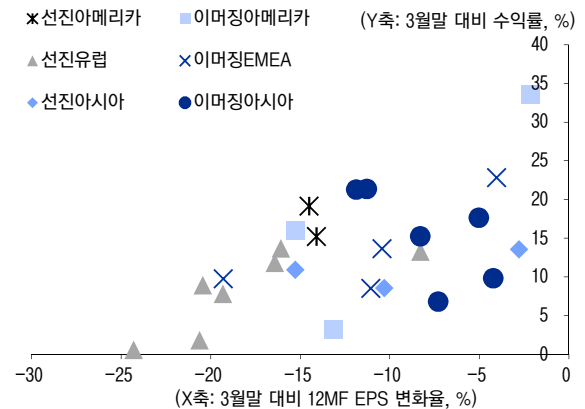
- ▶ 연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Fwd EPS가 상승하는 것은 Fwd EPS는 연간 실적 추정치의 가중평균이기 때문인데, 2019년과 2020년 추정치의 사이를 거쳐 2021년 EPS 비중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.
- ▶ 글로벌 주요국의 3월말 대비 12개월 Fwd EPS 변화와 수익률을 살펴보면, 12개월 Fwd EPS가 덜 하향 조정된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
그림7 KOSPI 12M Fwd EPS와 연간 EPS 추정치



자료: Thomson Reuters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주요국 12M Fwd EPS 변화와 주가지수 수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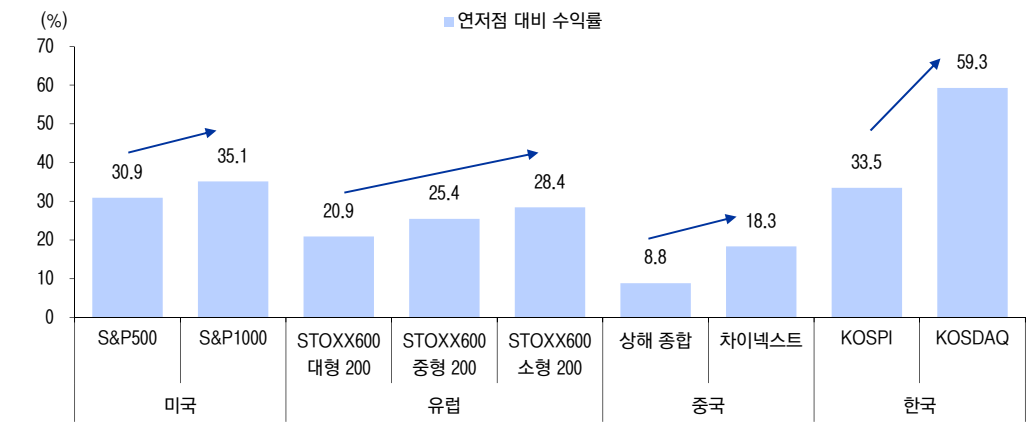


주: 전세계 시가총액에서 0.5% 이상을 차지하는 26개 국가 MSCI 기준
자료: Thomson Reuters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IT 업종 강세의 시그널

- ▶ 한국의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, ① 전세계적인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되면서 이익의 개선이 나오는 성장주 중심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고 ② 대형주 거래 비중이 높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 순매도를 이어갔기 때문.
- ▶ 미국, 유럽, 중국, 한국 시장의 2020년 저점 대비 5월 8일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보면, S&P 1500 내에서 중소형주 지수인 S&P 1000이 더욱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, 유럽의 STOXX600 역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남. 한국과 중국에서도 상해종합이나 KOSPI보다는,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성장성 있는 종목 위주로 구성된 차이넥스트와 KOSDAQ이 더욱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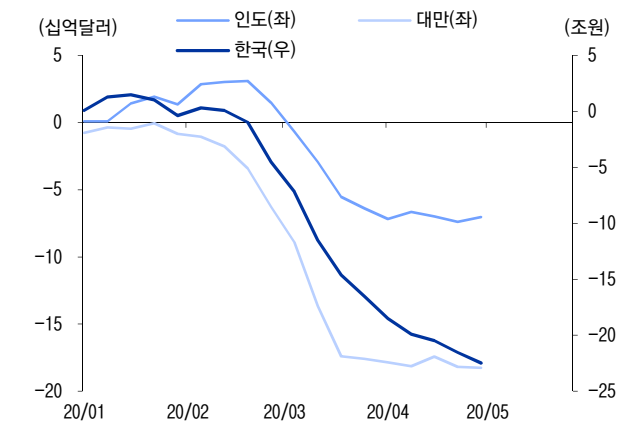
그림9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 2020 년 저점 대비 수익률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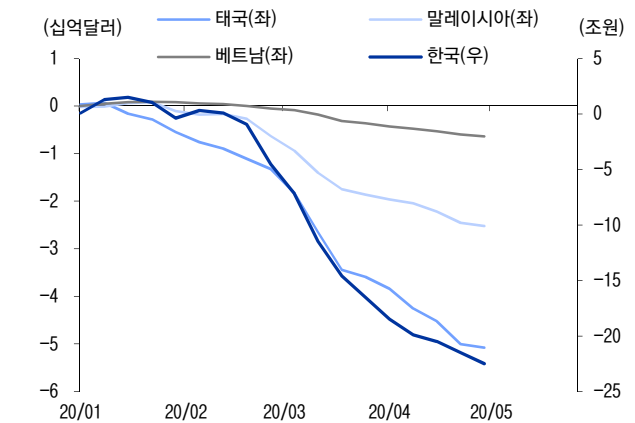
- ▶ 외국인의 순매도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, 아시아 주요국 주식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.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달러 이외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며 나타난 현상.
- ▶ 아직 아시아 주요 이머징 국가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

그림10 아시아 주요국과 한국의 외국인 주식 누적 순매수(1)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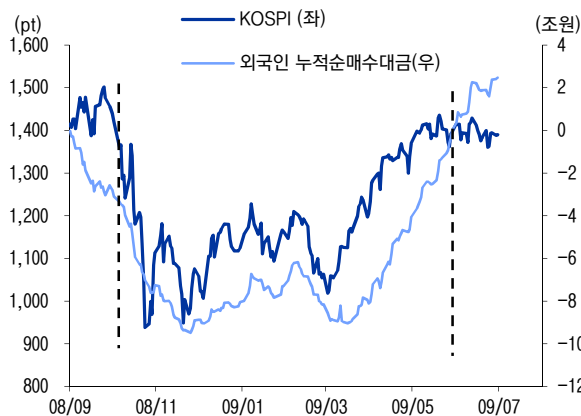
그림11 아시아 주요국과 한국의 외국인 주식 누적 순매수(2)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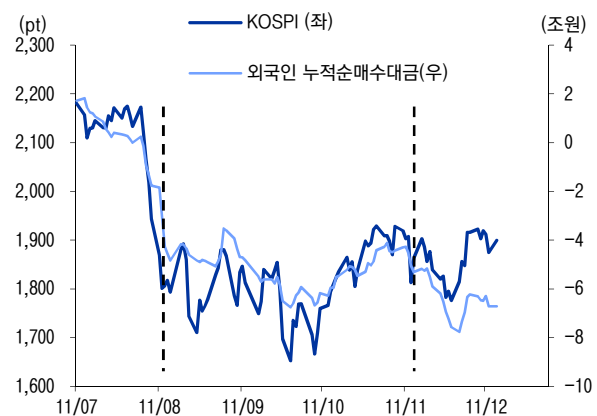
- ▶ 과거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를 비교해 볼 수 있음. 현재 3월 15일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8개월, 2011년 8월 10일부터 3개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임.
- ▶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, 과거 공매도 금지 이후 약 2개월 정도 이후에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고 국내 주식시장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, 현재 KOSPI는 해당 시기에 근접해 있는 상태. 과거와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겠지만, 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와 비교할 때 외국인 매도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.
- ▶ 중소형주 성장주 선호, 외국인 수급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IT 업종의 상대적 성과가 부진했지만, 뉴욕 증시의 IT 업종 강세, 외국인 순매도 정점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면 IT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.

그림12 2008년 공매도 금지구간 KOSPI와 외국인 순매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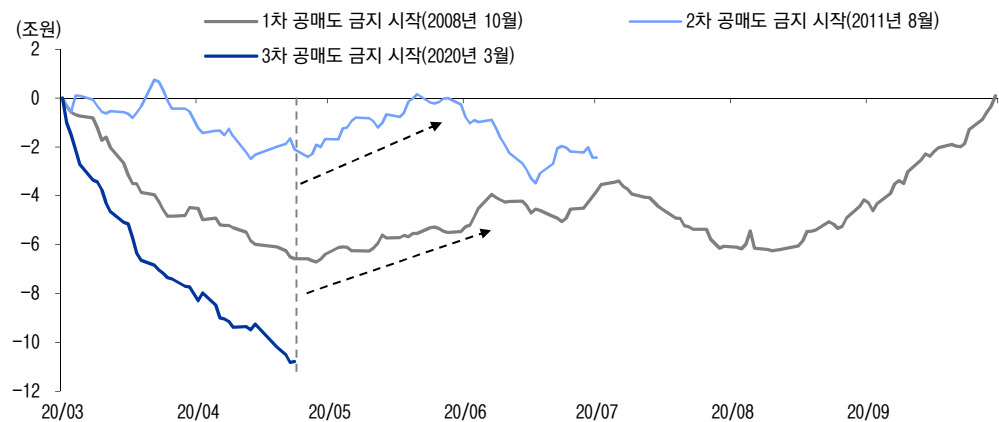
주: 검은색 점선은 공매도 금지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3 2011년 공매도 금지구간 KOSPI와 외국인 순매수


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4 과거와 현재 공매도 금지구간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

Market Data Check Up

글로벌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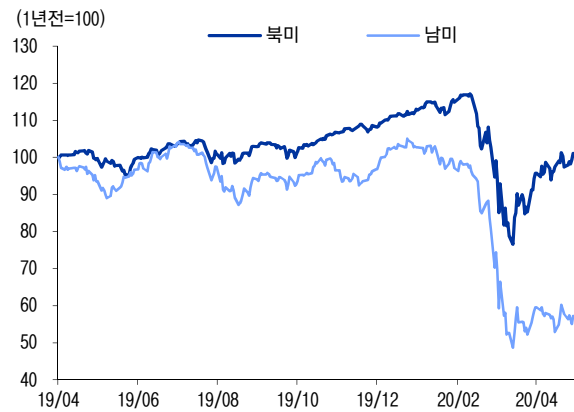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주가지수

그림15 MSCI 전세계/선진국/이머징 주가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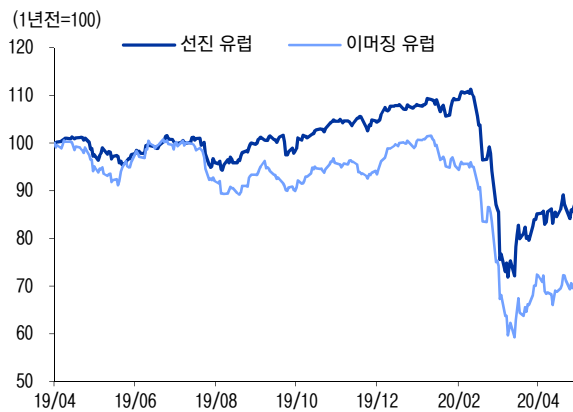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6 북미 및 남미 주가지수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7 선진 유럽 및 이머징 유럽 주가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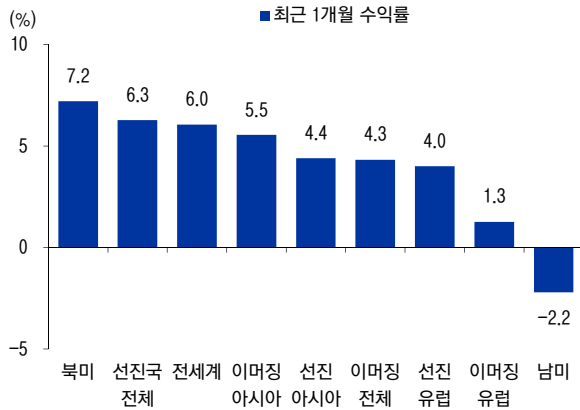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8 선진 아시아 및 이머징 아시아 주가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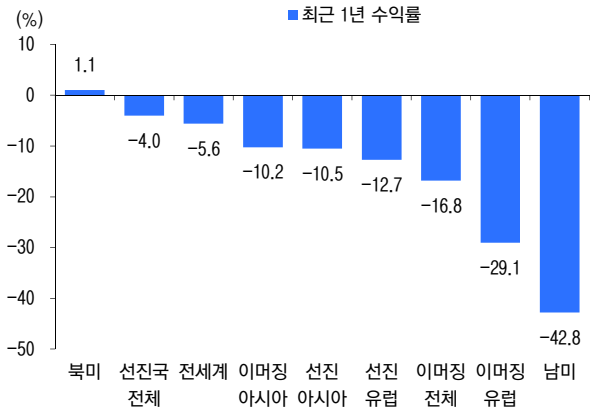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9 MSCI 지역별 최근 1개월 수익률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0 MSCI 지역별 최근 1년 수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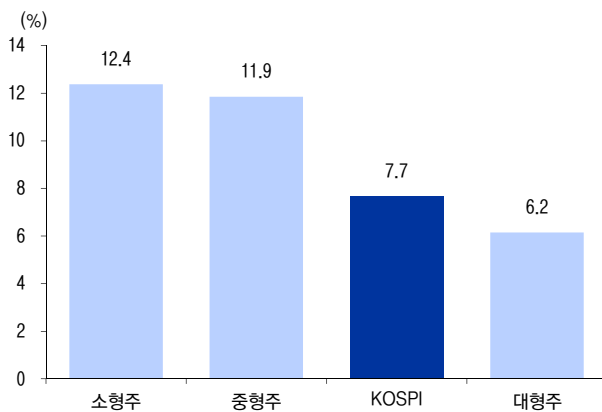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한국 동향

업종별 수익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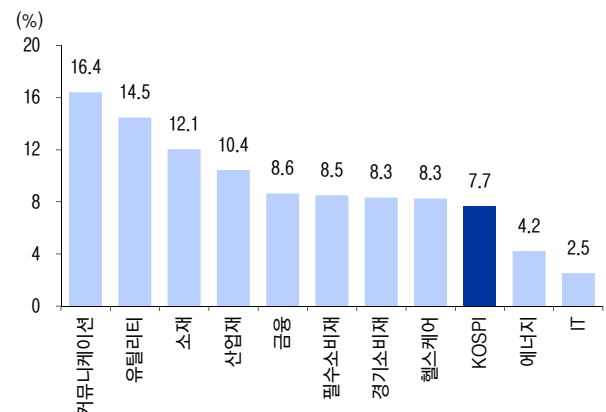
그림21 한국 시가총액 규모별 최근 1개월 수익률



주: FnGuide 분류 기준
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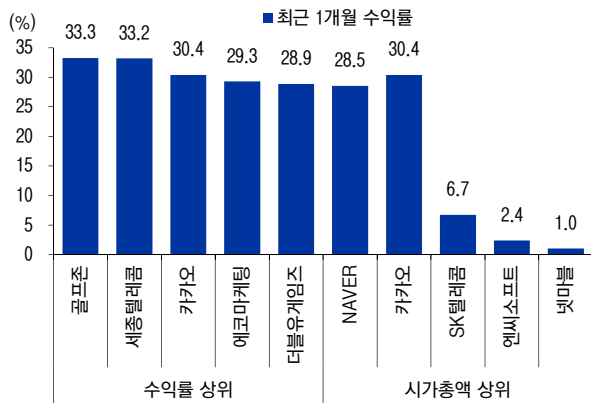
그림22 한국 업종별 최근 1개월 수익률



주: FnGuide 분류 기준
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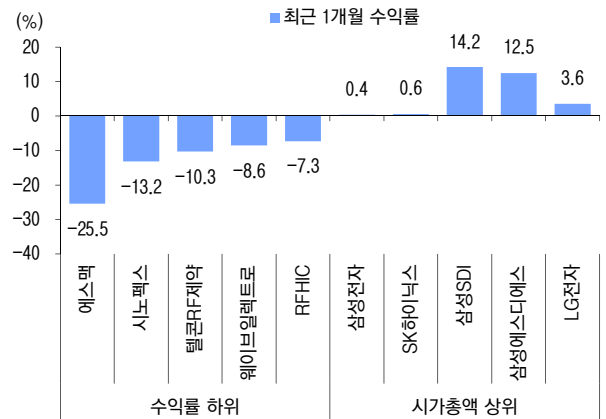
그림23 수익률 최상위 업종 수익률 상위/시가총액 상위종목



주: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기준
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4 수익률 최하위 업종 수익률 하위/시가총액 상위종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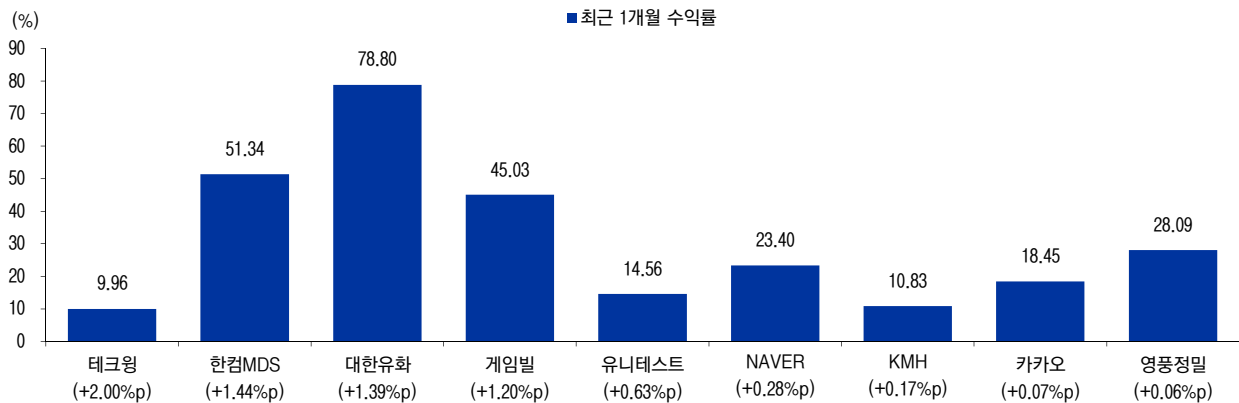
주: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기준
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한국 수급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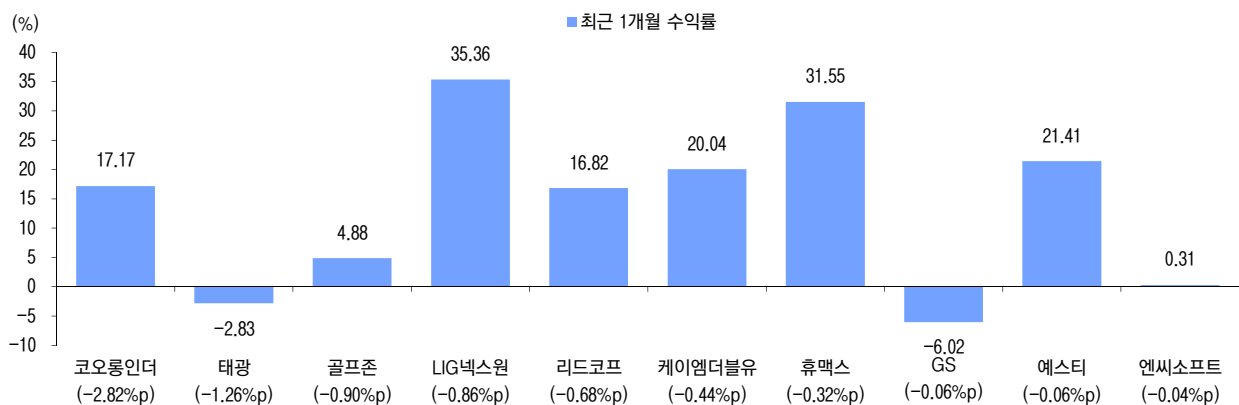
주요 지분을 공시 관련 기업

그림25 최근 1개월간 국내 10대 자산운용사 지분 증가 상위 9개 종목과 최근 1개월 수익률



주: 10대 자산운용사는 AUM기준, 괄호안의 수치는 지분증가 합산 수치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6 최근 1개월간 국내 10대 자산운용사 지분 감소 상위 10개 종목과 최근 1개월 수익률



주: 10대 자산운용사는 AUM기준, 괄호안의 수치는 지분감소 합산 수치
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표1 최근 1개월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주요 종목

코드	종목	시가총액 (억원)	변경(예정)일	변경 후 최대주주	변경후 비중(%)	변경사유	공시일	비고
A032620	유비케어	5,068	2020/05/29	(주)녹십자헬스케어	52.65	주식양수도계약(+)	2020/04/29	예정
A005880	대한해운	4,434	2020/04/10	에스엠하이플러스(주) 외 특수관계인 10인	52.14	장내매수(+)	2020/04/13	변경
A078600	대주전자재료	3,139	2020/04/17	임종규 외 10인	30.31	증여(-)	2020/04/17	변경
A002030	아세아	1,880	2020/04/10	이훈범 외 11명	43.07	증여(-)	2020/04/10	변경
A083660	CSA 코스믹	1,546	2020/04/01	조성아 외 2인	44.10	합병(+)	2020/04/01	변경
A065650	메디프론	1,276	2020/04/01	(주)브레인콘텐츠외 2인	19.69	제3자배정유상증자(+)	2020/04/01	변경
A118000	우리들휴브레	1,153	2020/03/28	그린러스크투자조합 외 2인	14.30	제3자배정유상증자(+)	2020/03/30	변경
A060900	케이알피앤이	1,099	2020/05/29	(주)제이씨씨홀딩스	25.06	주식양수도계약(+)	2020/03/27	예정
A214330	금호에이치티	989	2020/03/27	에스맥(주)	30.24	장내매수(+)	2020/03/27	변경
A182360	큐브엔터	951	2020/03/26	(주)브이티지엠피	30.61	주식양수도계약(+)	2020/03/26	변경

주: 시가총액 순 정렬, 자료: FnGuide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염동찬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